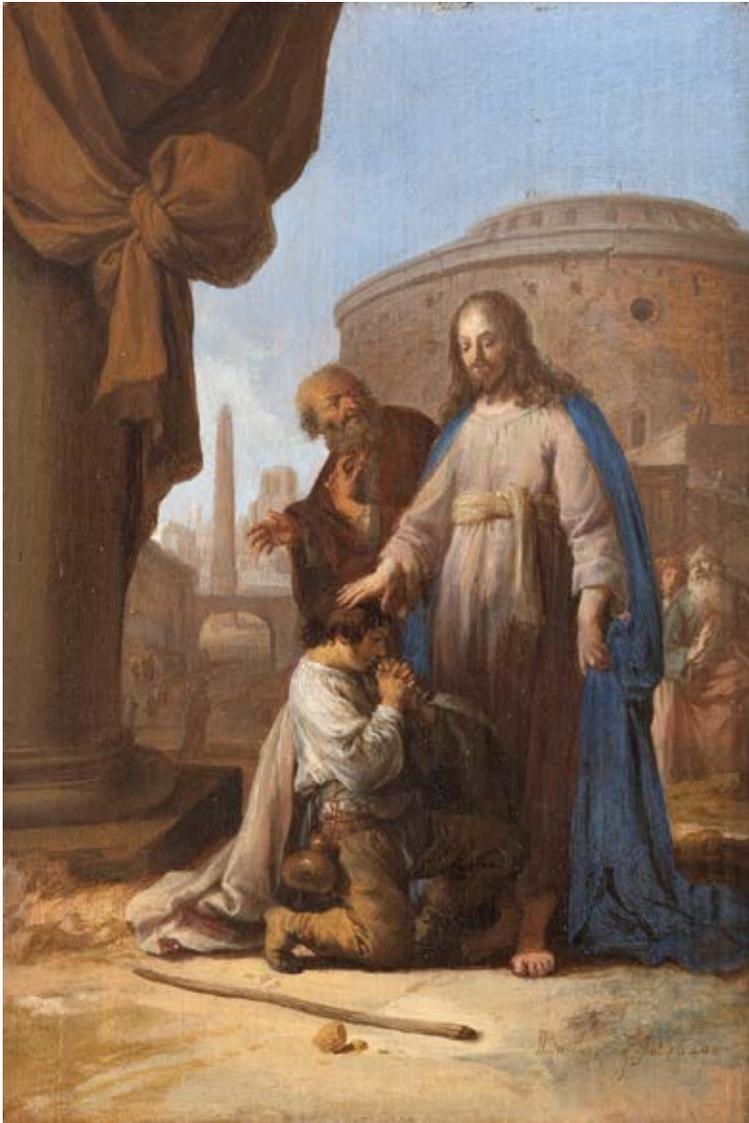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르 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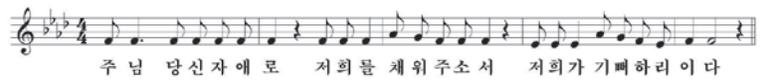


〈Christ and the Rich Youth〉, Bartholomeus Breenbergh, 1640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시편 90(89),12-13,14-15,16-17
(◎ 14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 10,17-3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459] 너희는 가진것 팔아
- 성체성가: [434] 산상 교훈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258] 구세주의 어머니여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 ¹⁹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 ²⁰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²¹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²²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²³ 예수님께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 ²⁴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 ²⁵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 ²⁶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²⁸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 ²⁹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 ³⁰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묵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상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솔로몬은 주님께 칭찬받는 임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힘은 그가 받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보다 더 귀한 제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한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셈법과 인간의 셈법이 다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판단은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를 드러내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보여 줍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느님을 기만할 힘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재물과 명예를 움켜쥔 인간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 어두워서 큰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나 지고한 빛에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남을 돕고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사람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하는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존귀함은 하느님 대전에서 비천하고 비참함으로 바뀝니다. 영혼의 눈먼을 일깨우는 천상의 빛이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을 얻은 영혼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왕홀과 재물은 허공에 사라져 없어지는 연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미사 강론(10월 9일)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관상에 할애하는 시간에 관해 성찰하도록 초대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핵심어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우리 행동을 위한 영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신 베타니아의 집에 있던 라자로의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루카 10,38-42)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관상과 봉사”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바쁘지만 주님의 평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강론에서 “각자의 행동방식을 가진 두 자매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준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반면 마르타는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기” 때문에 “산만”했다. 마르타는 “강인한” 여성들 중의 한 명으로, 오빠인 라자로가 죽었을 때(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책망할 수도 있었다고 교황은 강조했다(요한 11,21 참조). (마르타는)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았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으며 관찰력이 뛰어났지만, “관상”이 부족했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버리지” 못했다.

“물론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러 가지만, 그런 다음에도 항상 바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한 시간이 없으며,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쁨주의(indaffaratismo)’라는 종교의 신봉자가 되고 맙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며, 바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있습니다. (...)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여십시오. (...)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 행하는) 손의 언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쁜)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선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관상이 부족합니다. 마르타에게도 그런 관상이 부족했습니다.”

관상과 봉사

이와 반대로 마리아의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이 아니라고 교황은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으며,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중에 행해야 할 일”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날 전례의 제1독서(갈라 1,13-24)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오로가 구체화시킨 내용이 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즉시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갔으며” “그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러” 갔다고 교황은 설명했다.

“사도 바오로는 바로 이러한 관상의 정신, 주님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성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수하지 않기 위한 핵심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관상과 봉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 동안 예수님의 신비를 관상하는가? 그런 다음,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정신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는가? 아니면 복음에서 기인하는 봉사처럼, 내 믿음에 상응하게 일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번역 이창욱 <https://www.vaticannews.va>

제15차 세계주교시노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10월 28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안팎 청년의 삶을 논의하는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시노드)를 시작하며 주교시노드 대의원들과 청년들에게 함께 희망을 꿈꾸자고 당부했다.

교황은 10월 3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교시노드 개막미사 강론에서 “희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교회를 위한 시노드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주교시노드 대의원들에게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폭풍이 치는 바다에 빠져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마음을 넓혀, 교회와 젊은이들의 관계를 마비시키고 이들을 소외시키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과 변화의 증거로 교황은 시노드 개막미사에 참석한 두 명의 중국 주교를 언급했다. 교황청과 중국 정부가 주교 임명에 관해 맺은 협약의 결과로 두 명의 중국 주교가 사상 처음으로 주교시노드에 참석했다.



▲10월 3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시노드) 개막미사 중 주교시노드에 참가하는 전 세계 젊은이 대표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예물을 봉헌하고 있다.

교황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모였으며, 최초로 중국 본토에서도 두 명의 주교가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의 참석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와 모든 교회가 일치하는 일이 더 가시적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성공적인 주교시노드를 위해 우선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아무런 편견과 조건 없이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이 은사는 우리를 하느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끌 것”

이라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과 함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교시노드에는 51명의 추기경과 45명의 대주교, 137명의 주교 등 267명의 대의원이 참가했다. 또 투표권은 없지만 특별서기협력관 23명, 참관인 49명, 34명의 청년들이 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COME AND SEE”
John 1:39

제3회 동중부 한인 성소대회 2018 Korean American Vocation Conference

“와서 보시오” (요한 1,39)



성소대회 개최식



배웅진 신부님 특강



장명화 수녀님 특강



토요일 저녁 미사

제3회 동중부 한인 성소대회(2018 Korean American Vocation Conference)가 지난 6일(토)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알링톤 교구의 성소국(Fr. Michael Iseberg, Office of Vocations)과 다문화국(Ms. Corinne Monogue,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이 후원하고 성 정 바오로 성당 성소후원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2016년에 이어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약 80여 명이 참가했다.

“와서 보시오(요한 1,39)”라는 주제로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 강의는 ‘가정과 일상 생활 속에서 늘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제·수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발표자는 방명준 신부(St. Paul Chung Church), 배웅진 신부(St. Columbkille Parish, Brighton, MA), 장명화 수녀(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Region of Americas)이며, 영어 발표자는 이재화 신부(Campus ministry in Philadelphia), 박성하 수녀(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Region of Americas), 배웅진 신부(St. Columbkille Parish, Brighton, MA)가 담당했다.

Q&A 시간에는 Fr. Isenberg 와 강사 신부, 수녀 그리고 참가 학생 및 학부모와 교우들이 참여하여 열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장명화 수녀는 “순간의 성화 - the Moment of Sanctification”를 설명하며 순간 순간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영적 성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웅진 신부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가톨릭 신앙을 똑바로 알 때 개인과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시간의 십일조’를 충실히 하여 영적 성장을 꾸준히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참가했던 본당의 학부모 참가자들은 “신부님, 수녀님들 말씀처럼 부모인 우리들부터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강의도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토요일 저녁 미사를 함께 드리며 성소대회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질의 응답 시간 중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

“부모가 살지 못한 삶, 자녀가 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톨릭 신앙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학교, 직장 등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며 물질적 소유와 부의 축적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먼저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웅진 크리스토퍼 신부

“예수님과 가난한 이웃 안에서 체험한 참 행복”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MIT 대학과 안정된 직장보다 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티(Republic of Haiti)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화 수녀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아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제 성소 여정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느님께 자유롭게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화 신부

“Catching Fish? or Men?”

“80년대 어린 시절 필라델피아에서 부모님의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씻고 파는 일을 도와드리며 ‘KGB - Korean Ghetto Boy’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얻은 보람도 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도와 사람을 낚는 사제’가 되어 더욱 기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하 수녀

“꿈과 나의 선택”

“우리는 꿈을 지니고 있지만 그 꿈을 다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의 선택을 본받아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며 미국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가톨릭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CYO “The Social issues in Catholicism” class



Every last Sunday of the month, CYO has a combined class called “The Social issues in Catholicism”.

Each month, the teachers have made efforts to engage students in the paradigms of the Catholic church and the “millennial” social culture. Last month, we covered vocations in the Catholic Church and how it can relate to your future occupation.

Every month, we will be discussing social issues and clarifying where the Catholic Church stands on the topics of dating and relationships, politics, and many more!



✕ ✕ ✕ ✕ **Elaine Lim**(임서영 루도비카), 10th grade teacher

매달 마지막 주일에 CYO 학생들은 반을 합쳐 “가톨릭 신앙 안에서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는” 수업을 합니다.

CYO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톨릭 교회의 패러다임과 새 천년기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성소와 그것이 어떻게 미래 직업과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데이트·이성관계, 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학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28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4, 2018

Jesus and the Rich Young Man

Gospel Mark 10:17-30 (See the page 2)

The rich man in today’s Gospel reading wanted to follow Jesus. But he was sad when Jesus told him that he should sell his things and give his money to the poor.

Do you think Jesus wants everyone to give away everything they have?

God calls some people to give up all their things so they can live a special life for Him, like religious brothers and sisters.

But God also wants people who are rich to use their money and things for Him-to help the poor and the Church.

What do you have that is really special? Would you be ready to give it up if God wanted you to?



(바오로딸 콘텐츠- 오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 그림)

(www.thekidsbulletin.com)

WHEN Sunday, October 21, 2018.
12:00pm-8:00pm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WHO CYO 9th-12th grade

HOW TO SIGN UP Contact 이희준 아오스딩
703-629-0799

1 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14일(일) 오전 11:30(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4일(일) 오후 1시(B-3,4)

3 요한회 성지순례

• 일시 : 10월 14일(일)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 메릴랜드 Emmitsburg 성당

4 하상회 모임

• 일시 : 10월 21일(일) 오전 11:30(B-3,4)

5 안나회모임

• 일시 : 10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0월 21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7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0월 21일(일) 오후 1시(A-1)

8 바오로회 정기 모임

• 일시 : 10월 21일(일) 오후 1시, 친교실(점심 제공)

9 유아세례

• 일시 : 10월 21일(일) 오후 3시, 성당
• 성경 퀴즈대회 관계로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 : 10월 19일(금)까지 사무실

10 울뜨레아 10월 회합

• 일시 : 10월 26일(금) 오후 8시, 친교실 (A-1,2,3)
•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 불우이웃 돕기 5K 뛰기 / 걷기 대회

• 일시 : 10월 20일(토) 오전 7:30 - 10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성당 로비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 도내이션도 받습니다.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12 공동체 창설 32주년 기념 음악회

• 일시 : 10월 27일(토) 오후 8:30(성당)
• 음악의 밤 행사로 인해 특전미사가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 문의 : 김홍희 라파엘 (703)585-8380

13 공동체 창설 32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10월 28일(일) 오후 1시(친교실)
• 대상 : 구역별, 개인
• 성경 퀴즈 문제집은 친교실과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4 제5기 성 요셉 아버지 학교

• 아버지 학교에 형제님들을 초대합니다.
• 주제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나이 관계 없음)
• 일정 : 11월 3일 - 11월 4일(1박 2일)
• 장소 :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21208
• 참가 신청 : 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최 마르티노 (703)470-6337
김 라파엘 (703)585-8380

15 2018년 학생 견진성사 일정

• 가족 면담 : 10월 10일(수) 오후 7:30
• 고해 성사 : 10월 17일(수) 오후 7:30
• 리허설 : 10월 21일(일) 오후 1시 - 2:30
• 견진 미사 : 10월 23일(화) 오후 7시

16 성당 앞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 안내

• 공사 일정 : 10월 15일(월) - 10월 19일(금)
• 성당 앞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로 인해 Rippling Pond Dr. 입구와 성당 앞 주차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기간 중에는 Stringfellow Road 입구와 성당 뒷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의료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주일 오전 8시미사 의료 봉사를 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성물부 정기세일 안내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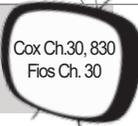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8주간: 느헤 8-13, 사도 17-18**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18일(목) 오후 5:00-6:00
10월 19일(금) 오후 8:00-9:00
10월 21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특강** :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4) 베타니아의 마리아 등.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유원진 비단네 신부.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선교: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거닌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 미사(오전 8시, 10시) 미사곡 변경

•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 하느님의 어린양 : 32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0월 7일(연중 제27주일)
주일헌금 \$ 7,719.00
교무금 \$ 10,85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545.00
특별헌금 \$ 740.00
2차헌금 \$ 2,912.00
합계 \$ 25,77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실리아),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희순(첼미), 백명수(마리아), 김경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정미라(아네스)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타메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범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충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14일(일)	연중 제28주일	요한회 모임(오전 9시, Emmitsburg 성당 성지순례), 단체부 모임(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 요셉 아버지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12시, 하상관),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오후 12:30, 친교실)
15일(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6일(화)	연중 제28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경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17일(수)	안티오키아의 성 이시도 주교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18일(목)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9일(금)	성 요한 드 브레비프, 성 이사야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 임원회의(오후 8시, B-1,2)
20일(토)	연중 제28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불우이웃 돕기 뛰기-걷기 대회(오전 7:30, Burke Lake)
10월 21일(일)	연중 제29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오전 11:40, 하상관 #4,5), 베드로회(오후 1시), 성 요셉 아버지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12시, 하상관),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키엘) 703-881-115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취미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